



## 미 증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감 등으로 강세

### 미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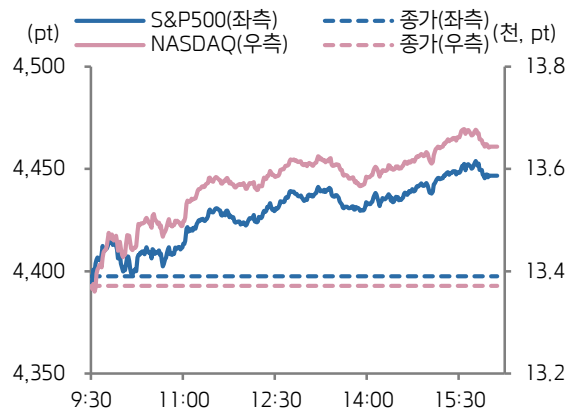
13 일 (수) 미국 증시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미국 3 월 PPI 지표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감에 힘입어 큰 폭 상승. 미국 3 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년대비 11.2% 증가(예상 +10.6%, 전월 10.3%), 근원지표 9.2% 증가(예상 +8.4%, 전월 +8.7%)으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며 인플레이션 경계감이 재부각됨. S&P500 지수는 0.1% 하락 출발했지만, 인플레이션 피크 기대감 확대, 금주 미국 물가 지표 불확실성이 완화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심리 회복으로 대부분 업종 상승. 이날 기술주와 리오프닝주들의 상승폭이 컸음(다우 +1.01%, S&P500 +1.12%, 나스닥 +2.03%, 러셀 2000 +1.92%).

개장 전 1Q22 실적을 발표한 JP 모건(-3.2%)은 EPS 2.76 달러(예상 2.69 달러), 매출 315.9억 달러(예상 308.6억 달러) 등 견조한 실적을 발표. 하지만 러시아 경제제재 여파로 5.24 억 달러 규모 피해가 있었고, 어닝 컨퍼런스콜에서 다이먼 CEO 는 고인플레이션, 공급망 차질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 미국 경제에 위협에 되는 어려움들이 존재한다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음.

업종별로 경기소비재(+2.5%), IT(+1.6%), 소재(+1.5%)의 상승 폭이 가장 컸으며, 유틸리티(-0.2%), 금융(-0.1%)은 하락. 금리 급등세 진정으로 대형 기술주들이 큰 폭 상승,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2.4%)와 다우 운송 지수(+2.0%)도 급등. 에너지 업종은 지속적인 국제유가 강세 지속에 힘입어 1.4% 상승. 이날 유틸리티, 헬스케어(+0.4%) 등 방어주들은 상대적으로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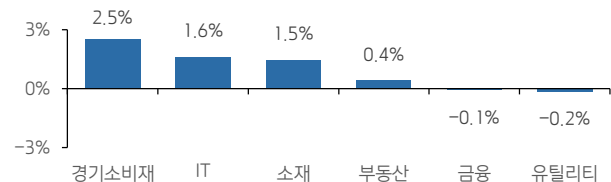
종목별로 애플(+1.6%), 아마존(+3.2%), 테슬라(+3.6%) 등 대형 기술주들은 대부분 상승. 최근 주가가 부진했던 엔비디아(+3.3%), AMD(+2.8%) 등 반도체주들도 강하게 반등. 델타 항공(+6.2%)은 실적 및 가이드언스가 서프라이즈를 기록하자 급등, 아메리칸(+10.6%), 사우스웨스트(+7.5%) 등 기타 항공주, 에이비엔비(+7.3%), 카니발(+5.4%) 등 기타 여행주들도 동반 강세 흐름을 보임.

### S&P500 & NA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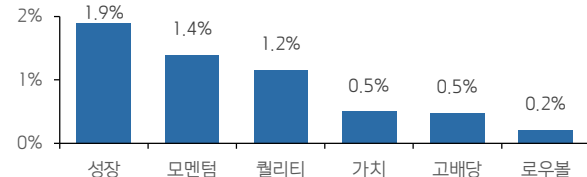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S&P500	4,446.59	+1.12%	USD/KRW	1,227.25	-0.72%
NASDAQ	13,643.59	+2.03%	달러 지수	99.85	-0.44%
다우	34,564.59	+1.01%	EUR/USD	1.09	+0.03%
VIX	21.82	-10.06%	USD/CNH	6.38	+0.01%
러셀 2000	2,025.10	+1.92%	USD/JPY	125.67	+0.04%
필라. 반도체	3,119.32	+2.36%	채권시장		
다우 운송	14,846.28	+1.98%	국고채 3년	3.010	-9bp
유럽, ETFs			국고채 10년	3.302	-0.8bp
Eurostoxx50	3,827.96	-0.09%	미국 국채 2년	2.348	-5.7bp
MSCI 전세계 지수	690.06	-0.39%	미국 국채 10년	2.699	-2.3bp
MSCI DM 지수	2,959.78	-0.42%	원자재 시장		
MSCI EM 지수	1,110.40	-0.12%	WTI	104.25	+3.63%
MSCI 한국 ETF	70.25	+2.52%	금	1984.7	+0.44%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2.52%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1.31%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29%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24.09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3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 주요 체크 사항

1. 델타항공(+6.2%) 등 미국 리오프닝주 동반강세가 국내 관련주들의 주가에 미치는 영향
2. 3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동결 여부
3. 옵션 만기일에 따른 외국인과 기관의 현선물 수급 변동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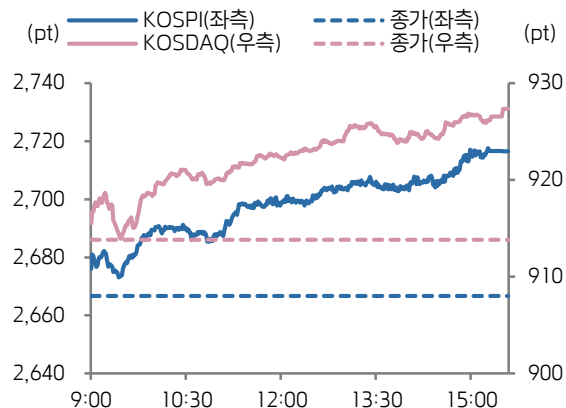
##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미국의 3월 생산자물가(11.2%YoY, 예상 10.6%) 및 근원 생산자물가(9.2%, 예상 8.4%)가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으나,, 우크라이나 사태 발 에너지, 운임 관련 품목의 급등에서 주로 기인했던 것으로 보임. 이처럼 높은 레벨의 생산자물가가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전가될 가능성을 고려하면, 고 인플레이션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부인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 하지만 13일 미국 증시 반응에서 유추해볼 수 있듯이, 3월 소비자물가 발표 직후 형성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감은 유효한 것으로 보임. 월러 이사 역시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 했을 가능성을 언급했으며, 브레이너드 이사도 지난 12일 발언에서 근원 물가 압력 둔화에 주목할 만하다고 강조하는 등 연준 내에서도 이 같은 시장의 의견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5월, 6월 FOMC 에서 연속적인 50bp 금리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는 점은 시장 입장에서 부담인 것은 맞음. 그럼에도 연준에게서 예상해볼 수 있는 악재(공격적 금리인상, 강도 높은 양적긴축 등)에 대한 증시 충격은 상당부분 주가에 반영해온 측면이 있음. 데이터 후행적으로 움직이는 연준 입장에서도 경기 침체 유발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긴축에 나설 것으로 판단. 더 나아가 5월 FOMC 이전까지는 대형 매크로 이벤트가 부재한 가운데, 미국을 중심으로 본격적 실적시즌에 돌입하는 만큼 시장을 움직이는 무게중심은 연준과 매크로에서 실적으로 이동할 전망. 금번 실적시즌에서는 1분기 실적 자체도 중요하지만, 인플레이션, 임금, 공급난, 우크라이나 사태 등 비용과 관련된 충격과 이를 반영한 기업들의 가이드نس 변화 여부가 관전포인트가 될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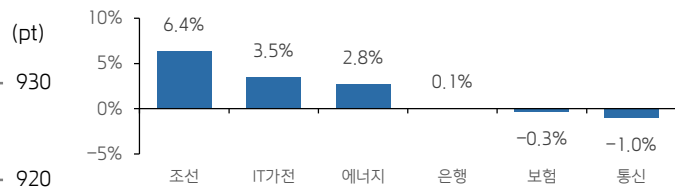
금일 국내 증시는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감, 시장 금리 하락, 미국 증시 강세 등 우호적인 대외 여건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4월 금통위와 옵션 만기일이라는 장중 국내 주요 이벤트로 인해 수급상 변동성이 확대될 소지는 있음. 다만, 금통위에서는 금리 동결로 우세한 쪽으로 컨센이 형성됐으며, 옵션 만기일에는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에 비해 수급 충격이 크지 않은 경향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또한 전거래일 미국 증시에서 긍정적인 업황 가이드نس를 제시한 델타항공(+6.2%) 등 항공, 크루즈, 여행주들이 동반 강세를 연출했다는 점을 감안 시 금일 국내 증시에서도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도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

## KOSPI & KO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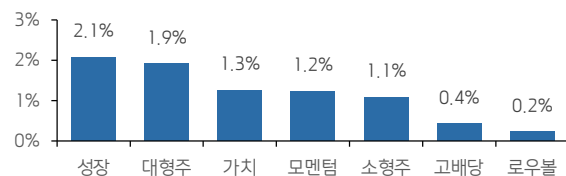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iwise, Fnguide, 키움증권

---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